

Venture 즐겨찾기

KyVA

1999년에 창립된 경기벤처협회는 든든한 지원으로 경기도 내 벤처기업 성장의 발판이 되고 있다. 서울과 달리 IT업종보다는 제조업 중심의 중소·벤처기업이 회원사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 지원 업무의 형태나 내용에서 남다른 특성을 보이는 경기벤처협회 사업의 이모저모를 들여다본다.

경기도 내 벤처기업의 성공을 이끈다 경기벤처협회

경기벤처협회 홈페이지 (<http://www.kyva.org>)



경기벤처협회의 홈페이지에서는 5가지 팀별 지원사업 소식을 전하고, 회원사들의 각종 건의 및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담당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등에 시정요청에서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마련을 요구한다. 또한 회원 자료와 각 분야의 뉴스를 전달하는 뉴스레터, 벤처지원 정보 등을 제공한다.



기도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며, 도내 각계각층의 경제주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인들, 특히 극소수의 인원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의견과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을 취합할 단일화된 기구가 없어 개별적인 노력과 시간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산적해 있는 문제점들을 취합하고 해결할 단일창구를 설립하여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에만 주력하도록 돕는 것이 경기벤처협회의 역할이다. 또한 경기지역 벤처기업들의 경영 및 기술정보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공동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회원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경기도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및 마케팅 지원 사업

경기도 내 중소·벤처기업의 성공 발판을 마련하는 경기벤처협회의 주요업무를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원서비스 분야. 이 분야에서는 벤처확인 컨설팅 서비스, 메일링 서비스, 벤처기업확인 현판 무료제작 및 그룹웨어 구축지원, 각종 협회 행사·전시 참여지원, 각종 표창상신, 관공서 및 유관기관 지원 시책 정보 등을 회원사에 제공한다.

둘째는 기술융합 협력사업 분야이다. 이 분야는 기술융합형의 기술·제품을 개발하고 공동브랜드 개발과 정책자금컨설팅 및 해외규격인 인증득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또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는 경기청년뉴딜사업, 중소기업청과 함께 추진하는 청년채용패키지사업, 산업지원부와 함께 추진하는 이공계미취업자현장연수사업 등의 인력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셋째는 생산기반구축 분야로서, 첨단 벤처기업들의 집적화를 통해 집중지원하고 있다. 추진사업으로는 수원지방 산업단지 내 수원첨단벤처밸리 건설과 3개 이상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입지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및 경영 개선을 구축하는 협동화사업이 있다. 또한 아파트형 공장 분양정보, 공장부지 정보, 임대사업장 정보 등과 함께 개별기업의 사업장 확장 및 이전 컨설팅을 하는 관내 생산기반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넷째, 해외마케팅 분야에서는 전 세계 21개국 37개 에이전시를 구축

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판로를 창조하는 KYVA-HUB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회원기업들의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 현지 시장조사, 시장개척단 파견, 회원사들의 물류비용절감을 위한 물류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는 통합마케팅 분야의 지원이다. 회원사를 중심으로 수요기업을 발굴하여 생산재의 구매정보를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홈쇼핑, 인터넷쇼핑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소비재의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또한 기관 단체의 생산재·소비재 구매 사업 안내 및 관련 기관, 부서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나아가 협회 및 회원사를 미디어에 홍보하고 봉사활동 등 대외협력 및 지원활동을 벌인다.

한편 협회는 경기도와 함께 정기적으로 <중소벤처기업편람>(한-English판 5월, 한-中판 11월)을 발간 중이며, 2006년부터는 회원사 홍보를 위한 정기간행물을 발간할 예정이다.

통합적 활동으로 한계 극복

경기벤처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방향은 궁극적으로 회원사의 판로개척을 통한 매출확대와 이를 통한 기술환경, 경영환경 강화라는 선순환고리를 구축하기 위한 통합적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전문현지마케터를 중심으로 한 해외마케팅사업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역할을 투입하고 있다. 이미 동남아, 중국 등으로 진출한 바 있는 이 사업은 시장개척단 등 기존의 판로개척활동과 병행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기술합작, 기술융합을 통한 공동개발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은 인력, 자금, 기술 등 일부 분야에서 상대적, 혹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협회는 그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 간의 합작과 융합을 통한 기술개발과 시장개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벤처협회를 주목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남다른 벤처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데에 있다. 산업의 기반인 제조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벤처의 생존조건이라는 판단 아래, 회원사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고 부가가치창출이 현실적인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정보와 네트워크 제공 및 벤처캐피털을 연계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수단을 통해 성공사례를 창조하고, 이 성공을 기반으로 다수의 성공기업을 재창조하는 선순환고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과정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경기벤처협회 이정석 사무국장

경기벤처협회의 주된 사업은 경영자금 및 판로개척 그리고 인력확보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벤처기업의 공동된 애로사항을 해결할과 동시에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명실상부한 벤처협회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벤처기업의 위상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문의 031-259-7240)